

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, 한국과 개발 사업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한다

- 구윤철 부총리, 쉰우 자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임 총재와 만나
한-AIIB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.24일(월) 방한 중인 쉰우 자이(鄒加怡, Zou Jiayi)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*(AIIB) 신임 총재(‘26.1월~)를 만나 향후 한-AIIB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이번 방문은 신임 총재가 부임한 이후 첫 아시아 내 선진공여국 방문으로, 쉰우 총재의 한-AIIB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.

*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):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'16.1월 출범한 국제금융기구

먼저, 구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*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임 총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 이에 쉰우 총재는 은행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5대 주주로서 한국의 적극적 기여 덕분이라고 화답하며,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.

* 회원국 수: ('16년) 57개국 → (현재) 111개국, 개발 프로젝트 총 373건, 724억불 승인

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금융역량을 결합할 경우,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너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재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. 아울러, 은행 내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과 분야에 한국인 채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. 이에 대해, 쉰우 총재는 개발경험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기술기반 인프라 사업 협력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	곽소희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도 (therightway@korea.kr)